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와 효율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확보 방안

이재은

이 연구는 식품, 의약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효율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리스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상호 의견교환의 과정”으로 보고, 효율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확보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리스크에 대하여 소비자가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리스크와 관련된 표준화된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 셋째, 언론은 관련된 공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넷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주제어: 식품안전, 의약품 안전, 리스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물론 이미 어떤 효과가 나타났고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위험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파괴적 결과와 위험의 잠재적 요소는 분명히 구분된다. 이러한 두 번째 의미에서 위험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현재 계산 가능한 피해를 미래로 연장시키는 데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 부분적으로는 일반적인 자신감의 상실이나 ‘위험 승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본래 위험은 예측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가오고 있는 재난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위험은 오늘날 이미 실제적이다(울리히 벡, 1997: 73).”

I. 서론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험은 보다 더 새롭고, 폭 넓고,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다. 위험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재해인 수해와 가뭄의 정도와 양상이 달라지고, 전통적인 전염병이 창궐하는 횡수가 증가하고 기간이 길어지며,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재해 양상의 변화는 수십 년의 재난관리의 정책적 경험을 벗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의 장밋빛 미래만을 부각시킨 나머지,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하지만 광우병, 멜

라민, 유전자조작식품, 줄기세포 등의 과학기술의 위험 및 윤리 관련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정부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점차 증가되어 왔다. 기존의 전통적인 재해 관리의 경험만 가진 정부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논란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김은성, 2009: 259).

사실 완전무결한 안전이란 환상일 뿐이다. 살다보면 여러 가지 위험에 둘러싸이기 마련이다. 모든 행동에는 크든 작든 어느 정도의 위험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일상생활에도 적지않은 위험 요소가 숨어있다. 일하러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생필품이 독극물에 오염될 수도 있으며, 의약품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인간의 육체는 허약함, 질병, 부상 등으로 위험에 처한다. 안팎으로 철갑무장을 하더라도 결국 무방비 상태로 자연적, 사회적 힘에 노출된다.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면 그에 못지않게 예방조치 또한 다양하다.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규와 사물이 있다. 예를 들면, 속도 제한, 교통 신호등, 충돌대비 쿠션 등은 도로 교통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것들이다(볼프강 조프스키, 2007: 33-35).

위험(risk) 상황으로는 자연현상으로 홍수, 흑한, 태풍과 같은 것, 인간에 의한 사고로 교통사고, 이해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질병 및 감염으로 인한 교통 발현, 또한 전쟁, 테러, 산업에 의한 위해로 포함될 것이며, 폭동, 강도, 사기 등도 넓은 의미의 위해 범주에 든다. 다른 분야로는 소득 감소, 경기 후퇴, 공기 오염, 환경 피해 등도 위해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이란 식품을 포함하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희망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의 결과로는 개인에게는 부상, 질병, 재산 손실, 환경 파괴, 정신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죽음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국력의 감퇴, 국가 신인도의 하락,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하락 등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신동화, 2007: 5). 특히, 국민들 사이에 정부 조치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만연해 있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주요한 부분은 정부와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어놓고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면 불신의 수준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김동원, 2010: 239-240).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조직은 외부로부터 기인되는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이건호, 2007: 33). 따라서 어떤 조직이든지 리스크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식품이나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자체가 갖는 전문성으로 인하여 정보의 획득과 이해, 처리는 다른 어떤 재화보다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송유진·유현정, 2010: 16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문제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신속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II. 생활안전과 위험

1. 생활안전과 위험의 관계

위험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uncertain situation)으로서, 사회체계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의 증가도 함께 나타난다(Bax, Steijn, and Witte, 1998: 177). 즉 체계 복잡성의 증가와 상호의존성이 커질수록 불확실성이 확장됨으로써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한편,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영평, 1995: 180). 이 같은 불확실성은 일부 상황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 할지라도, 약간의 불확실성은 항상 보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Boulding, 1982: 15-17; Wildavsky, 1988: 4).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동과 계획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Kinchin, 1982: 3; Gherardi, Nicolini, & Odella, 1998: 202). 이처럼 위험에 내재하는 본질적 속성인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인간 사회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첫째,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체계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 즉 위험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위험은 예방되어야만 하는 미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Beck, 1992: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여전히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지니고 있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험이 실제 발생했을 때 사전에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있다. 위험과 관련된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위험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77: 1961). 일반적으로는 위험이라는 용어는 위태로움이나 손실 가능성 중 어느 하나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어떠한 활동도 위험이 없이 수행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Kinchin, 1982: 3).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정의는 3가지 필수적인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이상팔, 1995: 9). 그것은 위험원, 위험의 실제적 발생, 그리고 손실의 규모 등이다. 우선 위험의 위험원(risk source)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부산물로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위험(technological risk)이고, 다른 하나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적 위험(natural risk)이다. 자연적 위험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결방안이 마련된 경우는 더 이상 위험원으로 인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과학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위험원을 발견하여 위험원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위험에 대한 강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한 차원을 통하여 지각되고 평가된다. 둘째, 위험의 실제적 발생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이 문제가 된다. 사건의 심각성은 사건의 빈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손실(risk loss)이란 손해, 상해, 손상, 상실, 가치의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서의 가치손실의 뜻을 지니며, 그 폭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위험의 실제적 발생으로 인해 사건의 심각성이 인식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위험에 대한 인식이 생활 안전과 연계되어 이해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생활 안전에 대해 위해 요인을 관리하려는 경향이 강조되어 학교 등의 단체 급식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레저, 관광, 교통수송 등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자 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위험의 확인, 발생개연성, 위험수준의 측정, 나아가 이의 수용가능성의 정도 등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성비, 매연, 오폐수 방류, 불법유해의약품, 오염된 지하수, 핵발전소에서 유출·폐기된 방사능이나 오염물질 등에 대한 일반 시민의 감정적·조건반사적 반응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위험평가나 관리의 과학적 근거의 마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영훈, 1998: 91). 따라서 위기에 대한 관리와 과학적 측정의 문제, 사회적 영향의 결과로서의 재앙 등은 상호 영향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대한 연구는 위험(risk)과 재앙(catastrophe)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고, 위험은 그 자체의 잠재적 형태에서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Friedman, 1987: 67).

다만 사회적 위기의 의미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위험원이 사회에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이 사회적으로 손실 가능한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후자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위기의 원천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만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사회적 위기의 의미는 위험원이 사회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안전관리는 사회구조 자체에 안전관리시스템이 내장되어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사회의 특정 구성요소가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요소들, 예를 들면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생활을 하는 등의 모든 사회 구조 전체에 안전관리가 일상화되고 양식화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적 안전관리에서는 내가 위기를 인식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이 위험을 인식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안전관리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필요하다.

첫째, 위험이 특정한 사회 구성요소에 대해서만 위협하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요소들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위험 하나 하나에 적합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위험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의 각 경제 주체들은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안전관리 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위기로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자정 능력을 길러야 한다. 안전관리 비용의 지불 능력이 없는 개별 주체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은 사회 체계 전체에 큰 희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관리 방식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셋째, 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주체 각각에 의한 안전관리의 총합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사회 전체 안전관리의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공동의 투자, 즉 재원, 인식, 제도, 교육 등을 통해 사회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역력을 키우고 사회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키

우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관리의 방식이 요구된다.

넷째, 공유된 위험은 특정 지역의 위험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완화시키도록 공공부문의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부문 조직만으로는 위험 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된다. 즉 위기 취약지역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며,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또한 안전관리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리스크의 의미와 특징

기업을 비롯한 정부, 정당, 사회단체 등 모든 사회 조직은 고유의 활동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크고 작은 각종 리스크를 겪게 마련이다.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비일상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인 리스크의 사전적 의미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위험 또는 문제에 당면한 시기, 또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상황을 뜻한다. 이러한 리스크는 시장의 불확실성, 프로젝트의 실패, 법적 책임, 신용 리스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적대적인 상대방에 의한 고의적 공격 등은 물론이고 자연적인 원인과 재난(natural causes and disasters) 등으로부터 연유할 수 있다(설승현, 2010: 1, 6).

리스크에 대한 정의는 각 학자별로 또는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고 발생했을 경우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정의되기도 한다(전미숙, 2011: 8). 하지만 일반적으로 리스크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확률 또는 불확실성을 의미하며, 위해나 손실을 초래하는 가능성으로 정의된다(Leiss, 2004). 또한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적 위험과 핵, 화학 물질, 위험 시설 등과 관련된 기술적 위험,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위험을 포괄한다(성민정·김수정, 2010: 561). 물론 이러한 리스크는 본질적으로 예측이 쉽지 않고 발생 원인 또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조직(organization)과 이해관계자(stakeholders) 간의 충분한 상호작용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상황 분석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설승현, 2010: 8).

리스크가 지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곽정기, 2012: 20-22). 첫째, 리스크는 항상 결정을 전제로 한다. 리스크는 리스크의 또 다른 특징인 불확실성 속에서의 선택에 의한 부산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리스크는 불확실성을 본질적인 요소로 한다.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 리스크는 대상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메커니즘의 불확실성, 그 가치와 상관없이 결과 및 영향의 불확실성, 인과관계의 불확실성, 실현될 시점의 불확실성, 그리고 인식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셋째, 리스크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학적, 기술적 정보와 결부되어 있다. 산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가 다양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반대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낳았고 그러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한편, 리스크는 과학적, 기술적 정보에 의하여 인식된다. 이러한 정보는 리스크의 관리 및 규제, 정책 판단 및 제도 설계, 기준의 설정, 법의 해

석과 집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넷째, 리스크는 문화, 사회의 가치, 개인의 인식과 감정, 지적 수준, 경험, 심리적인 요소들로 가공되어 주관적으로 해석된다.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된다 하더라도 리스크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리스크의 실현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공포로 몰아가거나 또는 리스크의 실현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응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윤혜선, 2009: 28).

다섯째, 리스크는 손해의 크기와 그것이 발생할 확률 또는 가능성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리스크 개념의 중심에는 확률 이론이 존재하게 된다. 리스크로 인한 손해의 중대성과 개연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나, 확률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야기하는 활동의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손익계산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여섯째, 리스크는 집단적 성격을 가진다. 리스크는 제한된 범위나 지역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조류독감, 신종 인플루엔자, BSE, GMO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안전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위험, 즉 리스크는 사전적으로는 손실 또는 상해의 가능성(possibility of loss or injury) 또는 위험성을 뜻한다. 리스크는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하고, 위험성은 위험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장국(2007: 30)은 리스크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되는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뜻하며,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여 대비하고 예방함으로써 사고 발생률을 최대한 줄이거나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최대한 작게 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한다. 김두현 외(2002)는 리스크의 정의를 재해 발생 정도를 추정하는 용어로서, 위험성은 재해를 일으킬 개연성(probability)과 재해의 결과로 예상되는 피해정도(severity)의 두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김두현 외, 2002: 302). Schneiderbauer & Ehrlich(2004)는 리스크를 “일정한 위험요소로부터 특정한 시기 동안에 위태(peril) 또는 위험상태의 일정한 구성요소(element) 까지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기대 손실 또는 유해한 결과의 가망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위험이란 사람과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제 권익에 반하는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probability)과 어떤 범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손실을 끼칠 것인가라는 손실의 심각성(severity), 얼마나 안전한 상황을 위협할 것인가라는 취약성(vulnerability)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험성의 증가는 안전성이 감소하게 되는 상관관계를 갖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위험요소를 예측하거나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3. 과학기술과 리스크

과학기술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위험요소 역시 생성해

내고 있다. 스트레스, 환경오염, 교통사고와 원자력발전소, 화학공장, 뉴미디어, 데이터 보호, 그리고 유전자 기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송해룡, 김원제, 조항민, 2005: 106).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얼마나 안전해야 충분히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주된 정책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새로운 리스크의 빈번한 발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많은 개인이 그들 자신을 기술의 수혜자로서 보다는 희생자로 보게 되었던 것이다(Slovic, Fischhoff, and Lichtenstein, 1986: 3). 이익과 편익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항상 리스크와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비록 기술 사정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평가하고 비교한다 할지라도 상쇄효과나 수지를 맞추는 것은 특별 이익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에 의해 수행되어 온 정치적 결정을 요구하게 된다(Deluca, Stolwijk, and Horowitz, 1986: 25).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리스크는 과학기술에 의해 창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위험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나 이익집단의 활동, 또는 위험 정보에 관한 의사소통 전략의 설계(Vertinsky and Vertinsky, 1981; Zimmerman, 1986: 442)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이 지니는 리스크의 수용과 채택이 과학기술 그 자체에서 나타나기 보다는 다른 결정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리스크의 수용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이해되는 “불행이나 위협에의 노출, 위해”라고 하는 리스크에 관한 정의는 리스크의 구성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편, 리스크가 도처에 만연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지도 못한다. 이보다는 리스크를 “특정 기간 내에 또는 특정 환경에서 바라지 않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라고 정의하는 것(Allen, Garlick, Hayns, and Taig, 1989: 8-9)이 바람직하다(유현정 외, 2011: 27-28).

III. 리스크 분석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1. 리스크 분석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은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우종민 외, 2007: 11; 이건호, 2007: 33-34; 김형섭, 2011: 611). 리스크 분석은 이 3 요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리스크 평가자와 리스크 관리자 사이에 끊임없는 정보교환이 밀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으로 이루어진 과학적 기반의 절차로써,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리스크 정보를 제공한다. 리스크 평가는 사용가능한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이건호, 2007: 34; 김형섭, 2011: 612).

둘째,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는 리스크 평가와는 구분되는 절차이다.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과의 관계,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이점, 사회적인 영향, 국제교역에서의 공정한 관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관리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인 활동이 강조된 절차이다. 리스크 관리는 참여자와의 협의하에 리스크 평가와 참작할만한 가치가 있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는 전략적인 대안의 형성과 경우에 따라서는 적합한 예방가능성 및 통제가능성의 선택의 과정을 의미한다(이건호, 2007: 34; 김형섭, 2011: 612).

셋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은 리스크 분석의 범주에서 리스크 평가자, 리스크 관리자, 소비자, 식품기업, 사료기업, 학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집단 사이의 위험과 리스크, 리스크 관련 요소와 리스크 인식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상호작용적 교환을 말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스크 분석팀의 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과거에는 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리스크 평가보다 덜 주목받았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리스크 분석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 3 요소가 성공적으로 통합될 경우에만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이건호, 2007: 34).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유형

WHO(2011)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험성 평가자, 위험 관리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위험에 대한 의견교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위험성 평가와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이며 지속적인 부분으로서 이상적으로는 위험성 관리의 시작부터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리스크 관리 과정의 각 단계를 이해하게 하고 리스크 평가의 논리, 결과, 중요성 및 한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과정적 측면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리스크가 발생하였을 때 그 리스크 분석 절차에서 개인, 집단, 그리고 기관들 사이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의 상호작용 과정(interactive process)으로 정의되기도 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2: 4).

그리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란 “현안이 되는 리스크의 내용,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관련 내용 등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개인, 집단, 조직 간에 상호 교환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NRC, 1989). 이는 단순히 리스크 정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요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 전달자와 청중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교환 과정(interactive process)으로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한 후에는 반드시 청중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쌍방향 대화(two-way communication)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현황파악(assessment), 대비(preparedness), 광범위한 홍보(broaden outreach), 계획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plan / risk communicating), 결과 평가(evaluation)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

다(우종민 외, 2007: 12).

여기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리스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상호 의견교환의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우선, 리스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발생한 이후까지의 리스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리스크 발생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기 이전의 잠재적이거나 혹은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포함하는 것이다. 둘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이해관계자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범주 안에서 리스크를 유발시킨 당사자인 개인이나 기업, 피해자인 국민 또는 소비자를 포함하는 동시에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 매체까지도 포함한다. 셋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정확하고 적시적절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상호 의견교환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리스크가 발생한 순간의 일시적이거나 사전적 또는 사후적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상호간에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만이 일방적으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받아들이는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와 의견이 서로 공유되는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적인 주입이나 일방적인 거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특정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발생 이전부터 발생 이후까지의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관심과 주의를 갖고 정보와 의견을 지니는 전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시점에서 잠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과정의 관점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늘날 현대의 기술발달로 발생하는 위험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과학적인 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인식의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위험의 사회적 논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라고 할 수 있다(김경희, 2012: 6).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위해 요인의 특성에 따라 관심 커뮤니케이션, 합의 커뮤니케이션, 위기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Lundgren & McMakin, 2009; 최성락, 2010: 13-14). 첫째, 관심 커뮤니케이션(care communication)은 우리가 리스크의 위험성과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이미 확인한 경우에 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예를 들면, 흡연과 같이 이미 우리가 널리 그 리스크를 알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에 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리스크 자체를 알리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리스크 관련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활동이다.

둘째, 합의 커뮤니케이션(consensus communication)이다. 리스크를 어떻게 방지하고 감소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잘 협조하도록 알리고 리스크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합의 커뮤니케이션의 초점은 관련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리스크를 감소시킬 방안들을 합의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셋째, 위기 커뮤니케이션(crisis communication)은 사건, 사고처럼 급박하게 위협에 당면한 경우에 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비상시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과 원칙

Lundgren & McMakin(2009)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일상적인 리스크 전달과 비상 시의 리스크 전달을 구분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에 따라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목적은 정보 전달(inform)이나 설득(persuade)을 통해 태도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일방성을 지니기 보다는 쌍방과의 지속적인 관심이나 주의(care)와 합의(consensus) 등에 중점을 두으로써 리스크 관련자들의 동참 속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최성락, 2010: 14).

최근 식품안전사건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향후 식품 안전과 관련된 보도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이다. 이에 식품안전 사건 발생 시,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 중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분석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정부, 언론, 소비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리스크 관리 결정의 근거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상호교환하는 것으로서, 정부, 언론, 소비자가 소통의 길을 열어놓고 서로 신뢰해야만 최선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오세라 외, 2012: 20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리스크 정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정보와 의견을 대상으로 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1-2). 종래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행정청이 무슨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은 국가의 일방적인 정보제공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게 피드백을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성공적인 리스크의 규제를 위해서는 규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에 정보 및 의사의 교류가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리스크 평가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관리수단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각 단계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요구된다(윤혜선, 2009: 181-182; 박정기, 2012: 58-59).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일반 커뮤니케이션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정보공개, 정보전달, 정보수집·의견청취, 참가와 상호이해 촉진, 정책합

의와 파트너십 구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달성되는데, 사실상 특정 사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수단과 방법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좌우되며, 리스크의 속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를 위해서 특정 계층에 의한 광범위한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는 정보전달을 위해 인터넷과 함께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하거나 보고서 등을 발간하기도 한다. 정보 및 의견 수집, 교환을 위해서는 설명회,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의 각종 모임의 형태가 유용하게 이용되며, 설문조사도 대표적인 의견수집 기능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이 밖에 참가와 상호 이해 촉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패널이 참여하여 특정사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며, 정책합의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협의회, 워크숍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11;곽정기, 2012: 59).

우리 사회는 정보를 스스로 생산하거나 갖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대중(수요자)이 공존하고 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위해의 정확한 종류와 그 위해 정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집단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수요자에게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수요자에게 자기 보호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식품을 예로 들면, 식품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이해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여러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통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시켜 사회적 긴장감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수단이 된다.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위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 위해를 최소화하거나 미연에 방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국가는 식품위해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형태의 위해를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옹고 빠른 정보 교류가 가능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야말로 현대 국가가 구축해야 할 필수적인 국가 사업의 하나이다. 근대사회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면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크게 고조되고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불안감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신동화, 2007: 6).

미국 환경청(U.S. EPA)에서는 일곱가지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우종민 외, 2007: 13). 첫째, 청중을 커뮤니케이션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라. 둘째, 청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셋째,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청중을 대하라. 넷째, 다른 신뢰할만한 그룹과 함께 일하라. 다섯째, 미디어의 요구에 맞춰라. 여섯째, 명료하게 전달하며 열정을 가지고 임하라. 일곱째, 계획을 주의깊게 세우고 결과를 평가해라.

IV. 효율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확보 방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리스크의 정도가 얼마나 정확히 전달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그 정보를 얼마나 제공된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실제 리스크의 정도보다 위험이 부풀려져 전달된다면 소비자는 불필요한 불안감과 함께 리스크 제거를 위해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리스크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과소평가하여 위험이 전달된다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다(유현정 외, 2011: 244-245). 따라서 정확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안전이 확보될 수 있으며,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리스크에 대하여 소비자가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소비자가 리스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의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가의 정도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귀옥, 2007: 24).

둘째, 리스크와 관련된 표준화된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 용어의 표준화는 언어에 의한 정보, 지식, 의사소통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객관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오세라 외(2012: 203-208)에 따르면, 보도에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사건의 과급효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건 보도 시 용어의 표준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주요 식품안전 사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소비자 단체가 사건의 보도에 사용한 용어의 불일치는 사건을 확대시키고, 사회경제적 손실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셋째, 언론은 관련된 공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리스크와 관련하여 언론의 역할은 공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리스크 회피 행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오히려 공중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관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한편 불신을 부채질하는 보도경향을 보이는 것은 옳바르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1980년대 이후 각종 식품 위해성 파동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언론의 지나친 상업주의, 전문성 부족, 과장 보도, 선정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안중주, 2010: 438). 2004년의 불량만두소 사건의 경우, 언론이 이를 다루면서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표현된 ‘쓰레기 단무지’란 과장되고 부정확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 사회적 파장을 키우는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정기혜, 2004: 64-67; 안중주, 2010: 438).

넷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건호(2007: 34-35)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일반 국민 의식도 조사를 근거로 식약청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있다. 즉 식약청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65.0%)과 정확성(63.4%), 공정성(62.6%)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이해가능성(57.4%)과 시의성(55.4%)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식약청이 제공하는 정보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스럽지만 그것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평가이며, 일반국민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정보가 적절하지 못한 시점에 제공되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중요한 정보도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되지 않으면 의미있는 정보가 될 수 없으며,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란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건호, 2007: 35).

다섯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향후 식품 및 의약품 분야는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 커뮤니케이터를 육성하여 국내 및 국제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상황에 대해 성공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IV. 결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어원은 ‘공통’, ‘공유’의 뜻을 지닌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되었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한 눈높이에서 대화를 한다는 의미이다(우종민 외, 2007: 17).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식품이나 의약품 안전은 일반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따라서 식품, 의약품의 안전 문제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신속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기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리스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상호 의견교환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리스크에 대하여 소비자가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리스크와 관련된 표준화된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 용어의 표준화는 언어에 의한 정보, 지식, 의사소통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객관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언론은 관련된 공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리스크와 관련하여 언론의 역할은 공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리스크 회피 행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정보도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되지 않으면 의미있는 정보가 될 수 없으며,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란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식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식품 및 의약품 분야는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화된 영역이 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전문 커뮤니케이터를 육성하여 국내 및 국제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성공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이루

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곽정기. 2012. BSE 리스크의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2012. 식품사고에 대한 위해인식 및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연구. 고려대학교 보건학박사학위논문.
- 김동원. 2010. 식품안전규제에 있어서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한국위기관리논집. 6(4): 239-254.
- 김영평. 1995.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영훈. 1998.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학사.
- 김은성 편저. 2009.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신기술 및 신종재난을 중심으로. 서울: 법문사.
- 김정선. 2011. 우리나라 식품 위해분석 체계 현황 및 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174: 39-50.
- 김형섭. 2011. 학제간 문제로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 연구. 11(2): 605-632.
- 박재훈. 2011. 기업의 사고와 위기관리 119.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 볼프강 조프스키 지음. 이한우 옮김. 2007. 안전의 원칙: 위험사회, 자유냐 안전이냐. 파주: (주)도서출판 푸른숲.
- 설승현. 2010.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에 관한 연구: 조절초점적 관점에서. 동국대학교 경영학박사학위논문.
- 성민정, 김수정. 2010. 소비자의 위험 인식에 따른 제품 구매 및 커뮤니케이션 행동. 한국광고홍보학보. 12(4): 555-589.
- 송유진, 유현정. 2010. 한중미일 의약품의 표시기준과 내용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6(2): 139-162.
- 신동화. 2007.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Risk Communication: Risk Communication for Food Safety Control. Safe Food. 2(2): 5-10.
- 안종주. 2010. 낙지 카드뮴 파동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한국환경보건학회지. 36(5): 435-439.
- 오세라, 신원정, 박태균, 김보영, 김호식, 이정호, 황성휘, 하상도. 2012. 주요 식품안전사건에서 정부와 언론이 사용한 보도용어의 차이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27(3): 203-208.
- 우종민, 염태경, 황진희, 오우용, 장동덕, 이효민. 2007.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성공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Safe Food. 2(2): 11-18.
- 울리히 백 지음. 홍성태 옮김.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서울: 새물결.
- 유현정, 최은실, 김성숙, 이재은. 2011. 위험사회를 사는 소비자와 생활 안전. 서울: 대영문화사.
- 윤혜선. 2009. 리스크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식품안전법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문.

- 이건호. 2007. 국내 식품위해사건 사례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발전방향. *Safe Food*. 2(2): 33-42.
- 이귀옥. 2007. 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Safe Food*. 2(2): 19-27.
- 이상팔. 1995. 지역주민의 위험정책 수용에 관한 연구: 원자력폐기물처분장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자, 제도, 지역공동체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 전미숙. 2011. 미디어와 정책 신뢰도가 의약품에 대한 지식, 태도, 위해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약학박사학위논문.
- 정기혜. 2004. ‘불량만두’를 통해 본 식품안전 보도의 문제. *신문과 방송*. 2004년 8월호: 64-67.
- 최성락. 2010. 식품 사고 분석을 통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식품의약학박사학위논문.
- 최윤희. 1994. 기업의 위기관리와 PR전략.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Allen, F. R., A. R. Garlick, M. R. Hayns, and A. R. Taig, eds. 1989. *The Management of Risk to Society From Potential Accidents*(The Main Report of the UKAEA Working Group on the Risks to Society from Potential Major Accidents). London and New York, Elsevier Applied Science.
- Bax, Erik H., Bram J. Steijn, & Marco C. De Witte. 1998. Risk Management at the Shopfloor: The Perception of Formal Rules in High-Risk Work Situations.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6(4): 177-188.
- Beck, Ulrich. translated by Mark Ritter.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Publications.
- Boulding, Kenneth. 1982. Irreducible Uncertainties. *Society*. 20(1): 11-17.
- DeLuca, Donald R., Jan A. J. Stolwijk, Wendy Horowitz. 1986. Public Perceptions of Technological Risks. *Risk Evaluation and Management: Contemporary Issues in Risk Analysis*. 1: 25-67.
- Friedman, Kajsa Ekholm. 1987. The Study of Risk in Social Systems: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Lennart Sjöberg(ed.). *Risk and Society: Studies of Risk Generation and Reactions to Risk*. London: Allen & Unwin.
- Gherardi, Silvia, Davide Nicolini, & Francesca Odella. 1998. What Do You Mean By Safety? Conflicting Perspectives on Accident Causation and Safety Management in a Construction Firm.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6(4): 202-213.
- Kinchin, G. H. 1982. The Concept of Risk. A. E. Green(ed.). *High Risk Safety Techn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Ltd. 3-13.
- Leiss, W. 2004.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Practice. *Toxicology Letters*. 149: 399-404.
- Lundgren, Regina E., and Andrea H. McMakin. 2009. *Risk Communication: A Handbook for*

- Communicating Environmental, Safety, and Health Risks*. N.J.: John Wiley, & Sons, Inc.
-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1989. *Improving Risk Communi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Slovic, Paul, Baruch Fischhoff, and Sarah Lichtenstein. 1986. The Psychometric Study of Risk Perception. Vincent T. Covello, Joshua Menkes, and Jeryl Mumpower. eds. *Risk Evaluation and Management*. New York and London: Plenum Press.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2. *Communicating in a Crisis: Risk Communication Guidelines for Public Officials*.
- Vertinsky, L and P. Vertinsky. 1981. Communicating Environmental Health Risk: Assessment and Other Risk Information Analysis of Strategies. H. Kunreuther. ed. *Risk: A Seminar Series. Laxenburg, Austria: IIASA*.
-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77. Chicago, IL: G. & C. Merriam Co.
- Wildavsky, Aaron. 1988. *Searching for Safety*.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Books.
- Zimmerman, Rae. 1986. The Management of Risk. Vincent T. Covello, Joshua Menkes, and Jeryl Mumpower. eds. *Risk Evaluation and Management*. New York and London: Plenum Press.

李在恩: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한국의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집행구조의 다조직적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2000)를 취득하고,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위기관리, 조직이론, 정책집행 등이며, 위기관리학(2012), 재난관리론(공저, 2006) 등의 저서와 주요 논문으로는 “재난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2011)”, “뉴테러리즘 환경하에서의 국가핵심기반 보호대상 분석(2011)”, “Establishing the Partnership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Typology, Property, and Programs(2012)” 등이 있다(jeunlee@chungbuk.ac.kr).

투 고 일: 2013년 01월 03일

수 정 일: 2013년 01월 19일

게재확정일: 2013년 01월 23일

Efficient Risk Communication for Overcoming the Food and Drug Safety Problem

Jae Eun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overcoming problems related with food and drugs. For accomplishing the research purpose, in this study risk communication was defined as "continuous process of exchanging ideas for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 stakeholders related with food and drug safety problems". Some implications for efficient risk communic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us to understand the consumer's perception. Second, we have to choose and use the standard terms carefully for sharing the common meaning. Third, mass media should provide the exact information about food and drug safety problems to the public. Fourth, for efficient risk communication, the related public organizations have to provide the understandable information to people sufficiently. Finally, in the field of food and drug, we have to make every efforts to cultivate risk communication specialists.

Key words: food safety, drug safety, risk, risk communication